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고수온 비상대책본부 상황점검회의 개최

- 고수온 특보 발령 해역 7개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 대응상황 점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5일(수)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지방정부, 관계기관과 함께 고수온에 따른 어업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고수온 비상대책본부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황 장관은 그간 적조·고수온 발생에 대비한 실전형 해상훈련에 참여하고, 고수온 우려지역의 양식어가를 방문하여 대응 계획을 점검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연이은 폭염으로 인해 수온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지난 8월 3일 기준, 고수온 경보 발효(28℃ 이상 3일 지속) 해역이 6개에서 17개 해역으로 증가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 신고도 접수되고 있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황 장관은 고수온 비상대책본부장으로서 기관별*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고수온 대응장비(액화산소 공급장치, 차광막 등) 총력 가동, △고수온 취약 품종의 소비촉진 행사 연계 조기출하, △긴급방류 선제적 이행, △폭염 속 어업인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관리 철저 등을 당부했다.

* 7개 지방정부(충남·전북·전남·경남·경북·강원·제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는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밥상 물가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라며,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현장 중심으로 총력을 다해 어업인 피해를 막아달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기원 (051-773-5610)
		담당자	사무관	김 환 (051-773-5392)
			사무관	이나현 (051-773-5622)
			주무관	남정희 (051-773-5392)

